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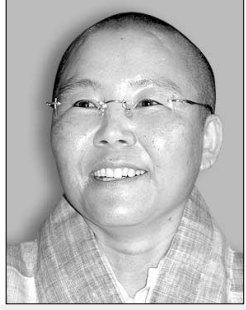
충남지역 청소년 포교 인정 '상' 받은 세 비구니스님

# 그저 '내 일'을 했을뿐인데...

따지고 보면 세상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진다. 요란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소박한 꿈은 때로는 깊은 감동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이의 귀감이 되기도 한다.

여기 세 스님이 있다. 세 스님 모두 충남지역에서 청소년을

자식같이 사랑하고 돌보아온 비구니 스님들이다. 바라는 것은 없다. 그저 '내 일'이라고 믿고 있을 뿐이다. 그래도 세상은 이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상'을 주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 상을 받을 만한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세 스님은 '부처님 일'을 한 것 뿐이라며 세상의 칭찬에 손사래를 쳤다.



보령 세원사 주지 정운 스님

### 상당실 운영, 청소년보호 앞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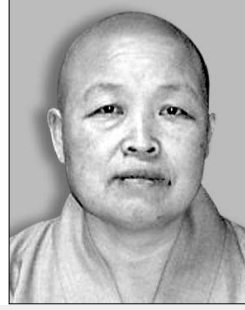
지난 5월 21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청소년 육성 유공자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1995년 보령에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열고 청소년 포교에 뛰어들어 이후 보령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막상 정운 스님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하며 겸연쩍어 한다. 그러면서 "청소년 건전화 육성을 위해 더 노력해야죠"라며 청소년들을 위한 끝없는 열정을 숨기지 않는다. (041)936-3894



대전 연화사 주지 종실 스님

### 시각장애인용 점자성전 발간

1994년부터 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며 청소년 사업에 나섰다. 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 대전지부장으로도 활동하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성전을 발간해 포교활동을 펼치는 등 대전지역 청소년 포교의 일등공신이다. 이런 청소년 사랑이 전해지면서 종실 스님은 평생청소년 수련원이 주는 평생상의 제3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종실 스님 역시 "뜻하지 않은 상을 받게 돼 어리둥절하다"면서도 "청소년 시절부터 자원봉사를 통해 인성을 높여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042)585-0035



청양 원각사 주지 정문 스님

### 부모없는 아이들 35년간 돌봐

내 아이 키우기도 쉽지 않은데 부모없는 어린 아이들을 35년 동안이나 보살펴 왔다. 그 긴 세월동안 키운 아이들은 모두 20여 명. 그리고 지금도 9명의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청양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심사를 거쳐 정문 스님을 '칭찬 1호'로 선정하고 5월 26일 칭찬 1호 인증장을 수여했다. 정문 스님은 인증장을 받으면서도 "더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박수를 보내 달라"고 말했다. (041)942-4917 한명우 기자

### 영동 중화사 시민선방 개원

충북 영동 중화사(주지 현규)가 시민선방을 마련하고 5월 31일 개원식을 가졌다. 충북지역에서 시민선방이 문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개원식에는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과 영동사암연합회장 성제 스님, 손문주 영동군수와 지역 기관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지 현규 스님은 개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현대인들은 자신을 위해 재부자를 해야 한다는 것만 알 뿐 무엇을 어떻게 재투자해야 하는지 모른 채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화사 시민선원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많은 것을 재울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5평 규모에 40여 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중화사 시민선방은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참선을 할 수 있으며, 일주일 간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특히 일주일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마지막 회향날 천도재도 지내게 된다.

이와 함께 중화사 시민선방은 큰스님 초청법회와 다도, 붓글씨, 요가 등의 문화강좌도 마련해 지역민들의 수행·문화유구를 충족시켜주겠다는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 김동수 열사 25주기 추모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 신화한 前 대법원 전남지부장 김동수 열사 25주기 추모제가 5월 27일 조선대에서 열렸다.

김동수열사 추모비 앞에서 열린 이날 추모행사에는 김동수열사 기념사업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평화실천불교연대, 조선대총학생회 등 단체와 김동수 열사 가족, 지인이 참석해 열사의 뜻을 기렸다.

김동수 열사는 1979년 대법원 지부장에 취임해 이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위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이준영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는...

### 서울 인왕사 대웅전

## 효·신행 살아 숨쉬는 절



인왕사 대웅전 신도들은 1년에 네 차례 성지순례를 하면서 신심을 다진다. 사진은 지난 4월 영월 보덕사 대웅전 앞에서 기념촬영한 모습. 뒷줄 오른쪽이 주지 혜원 스님.

인왕산 중턱에 오르면 절집촌을 만날 수 있다. 석불각, 관음전, 기원정사, 천안사 등 15개의 절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그 절들을 지나 조금만 더 오르면 스님이 장삼을 걸치고 참선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선바위 바로 아래 인왕사 대웅전을 만날 수 있다. 이곳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석불각이나 대웅전이나 관음전을 인왕사의 전각들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개개의 사찰이다. 대웅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절 이름이 '인왕사 대웅전'이다. 인왕사라는 명칭을 쓰는

함께 읽으면서 법회의 의미를 세기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주지 혜원 스님은 의식집을 자체적으로 제작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법회가 끝날 때마다 합동천도재를 지낸다는 것이다. 물론 이 역시 자체 제작한 의식집을 활용해 한글의식으로 진행된다. 합동천도재를 지내는 이유는 효사상이 신행의 근본이 돼야 한다는 혜원 스님의 소신 때문이다.

이렇게 한글의식으로 법회를 보고 천도재를 지내면서 신도들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다. 그저 기도만 했던 신

### 한글 의식으로 법회 끝날 때마다 합동천도재 관음회 구성, 양로원 봉사...장학사업도 구성

것은 이곳 인왕산에 인왕사(仁王寺)라는 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독특한 절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왕사 대웅전'은 이곳의 절 모두가 그렇듯이 기도도량이다. 규모는 100평 남짓하지만 기도객은 사시사할 끊이지 않는다. 그런 만큼 잘못하면 무조건적인 기복신앙으로 흐를 위험도 없지 않다.

인왕사 대웅전이 지금 '공부와 신행'을 강조하면서 분위가 쇠신을 피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인왕사 대웅전의 법회는 다른 절의 법회와는 다르다. 1시간40여분 정도 진행되는 법회 내내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염불을 한다. 불교의식을 한글로 자체히 풀어놓은 의식집을 신도들이

도들이 이제는 '관음회'라는 신행단체를 구성해 양로원을 찾아다니는 등 봉사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혜원 스님이 주지를 맡은 이후 4년 동안 인왕사 대웅전은 이렇게 달라졌다. 하지만 혜원 스님은 아직도 원력이 많다. 초하루·지방 법회 등 정기 법회 외에 일일법회도 꾸려볼 생각이고, 불우이웃돕기나 장학사업도 구성하고 있다. 신도들에게 회향의 의미를 가르치고 부처님 법을 많은 이들이 알도록 해주고 싶다는 발원에서다.

기도하며 회향하고, 회향하며 부처님의 뜻을 배워가는 절. 인왕사 신도들은 저마다 가슴 속에 이런 현판을 걸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 (02)737-4434 한명우 기자

## "친환경 공양물로 방생 실천하자"

### 도법 스님, 생명살림 불사위한 즉문즉설 법회사



도법 스님이 5월 28일 선덕사에서 법문하고 있다.

생명평화 탁발순례자 광주지역을 순례중인 도법 스님(인드라마 생명공동체 삼인대표)은 "방생의 현대적 실천으로 부처님전에 친환경 농산물을 올리자"고 강조했다. 도법 스님은 5월 28일 광주 선덕사에서

열린 '생명살림 불사를 위한 즉문즉설 법회'에서 "타지에서 물고기를 사들고 가서 놓아주는 형식의 자연환경을 무시한 방생은 불사기금을 만들기 위한 종교의 사업화로,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고문이자 위협이다"고 역설했다.

2년째 생명평화 탁발순례자 전국을 돌고 있는 도법 스님은 "농촌이 살지 않는 한 우리의 생명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스님은 "인간과 못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방생으로 농촌을 살려야하며 우선적으로 '부처님 공양물은 친환경 농산물로 올리자'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공=이준영 기자

## 중생 고통 덜어주는 열린도량 될 것

### 분당 열반사 5월31일 상량식, 5백여 사부대중 동참



성타 스님이 사부대중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목조법당 부석사 무량수전 양식을 본판 분당 열반사 상량식이 5월 31일 열렸다.

불국사 회주 성타·주지 종상·강주 덕민·정계사 주지 성행 스님과 지역기관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상량식에서 종상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월산 조실스님의 뜻을 받들어 마련한 열반사의 무량수전 건립이 원만하게 회향해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경과보고에 나선 성행 스님은 "열반사에는 지하 142평 지상1층 169평 지상2층 105평의 규모에 66평의 법당이 들어선다"고 밝혔다.

성타 스님은 치사를 통해 "부처님께서는 우주 생생 이전부터 열반의 세계를 가르치셨다"며 "열반사는 청정성 무처별성의 열린 도량으로 될 것"이라고 축원했다.

한편, 불국사는 열반사가 위치한 야탑3동 이웃돕기로 공양미 110포를 주민대표에게 전달했다. 글·사진·고영배 기자



육경신을 통한 천의선도 대중선사

#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 기적의 천의선도를 만천하에 공개, 전수시켜드립니다.

천의선도를 전수시켜드리는 과정을 천문을 열어드린다 합니다.

천의선도는 미구에 원인 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빙의된 조상신을 연화장 세계로 보내고 영능력을 길러 인명을 구원해서 후천 선경을 이루라는 천명을 받고 14년전 창도되었습니다.

※ 천문이 열리면 하늘에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하여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손과 손 사이에 자석의 밀고 당기는 것 같은 자장을 느끼며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은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 받고 태종선사님의 사면령이 내려지면 연화장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그 순간 30년 두통도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몸이 거뜨해지고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리며 집안이 편안해졌다고 이구동성입니다. 열심히 수련하면 당신손이 약손이 되어 타인에 천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홍보기간 중에는 평생회비 50만원을 20만원에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 ※ 천의선도 13주년 기념행사는 사회봉사활동

신다림으로 고통받는 분, 만성두통 이명증 목디스크 견비통 율동 위이상으로 소화불량자 우울증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 생리통으로 고통받는 분에게는 생명의 에너지(하늘에 서기)로 쓸어드리면 신화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분이 10중 8.9명입니다. 체험해 보십시오. 당신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나의 바램입니다. 단돈 10원도 댓가를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건강을 도와 준 것이 죄가 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 내 나이 75세 재산세 200여만원에 월 의료보험료 13만원 내며 병원에 한번 가지 않는 편한 영감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을 순회하면서 생로병사와 사후 영혼에 실상을 강의하고 다니는 것은 첫째 지면을 통해 발표한 외래종교교육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사례를 밝히며 한 민족의 주체의식을 회복시켜 세계평화에 기여하지는 못하지만요 둘째 무엇에 씨워서 제 갈길을 못하고 방황하는 당신에게 조상신을 천도시켜준다고 유혹하는 양의탈을 쓴 늑대들에게 속지마시고 빙의된 조상신은 당신 몸에 하늘에 서기가 총만할 때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받아야 떠나는 것이니 당신 외에는 누구도 보낼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셋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고졸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천상비결을 전해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6월 27일부터 1주일간은 부산에서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매월 마지막주에는 부산에 있습니다.

■ 위치: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베르빌 오피스텔 1821호 서면 롯데호텔 뒤편 800미터지점 22층 건물에 24시 사무나 찜질방 간판 보임. ☎ 전화: 051)803-5953, 011-9803-4600

■ 천의선도 본원: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토요일, 일요일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041)741-4600, 741-7600, 011-9803-4600 (서울 전수도장은 월, 화, 수요일이 상담일입니다) ☎ 02)2216-6278 천의선도 대중선사 김영생 올림